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조사
국외출장 결과보고

2019. 12.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출장 내용	4
1. 스위스	4
2. 오스트리아	19
3. 체코	27

I. 출장 개요

① 배 경

-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해외 사례지역 답사로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의 시사점 도출
 -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직접민주제에 의한 최고 의결기구인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 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광장에서 중대사를 투표로 결정함
 - 스위스는 주정부 형태인 칸톤과 지방정부 형태인 게마인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게마인데(코뮌)는 가장 기초적인 정부단위로서의 중앙정부가 아닌 게마인데 주민이나 의회가 투표로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구조를 지님
 - 인구 140만여 명에 달하는 최대도시 취리히는 칸톤단위의 주정부이며 그 안에 약 166개의 게마인데가 있음
 - 취리히에서 남쪽 방향의 강 린트강 왼쪽 연안자리에 위치한, 스위스에서 가장 작은 주(칸톤)인 글라루스(Glarus)는 오랜 전통을 가진 란츠게마로 해마다 열리는 직접민주주의의 성지임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도시 특성을 반영한 지역발전 모델 등 벤치마킹
 - 스위스, 취리히, 체코의 도시재생 현장, 시설 재활용 사례, 역사지구 등을 견학하여 향후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방향 논의

2 목 적

- 세종특별자치시 ‘제2차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체계 구축’, ‘균형발전 추진사업’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진사례를 견학
 - 시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운영현황, 구도심 역사지구, 공공시설 운영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코자 함

- 세종시 균형발전 모델 도출 및 읍면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에 기여
 - 선진 해외답사는 시민참여에 의한 세종시 여건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모델을 도출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세종시 균형발전 도모함에 있어 다양한 역사·문화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읍면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추진에 의미있는 시사점 제공 기대

3] 주요 일정

날짜	방문도시	방문기관(장소)	업무 수행내용
11.9 (토)	-	-	·이동(인천 → 파리)
11.10 (일)	파리 (프랑스)	현장답사(파리)	·파리 현장 방문(오전)
11.11 (월)	글라루스 (스위스)	글라루스	·지방정부 운영관련 면담
11.12 (화)	빈터투어 (스위스)	빈터투어	·빈터투어(구 산업단지시설) 도시재생 현장
11.13 (수)	빈 (오스트리아)	현장답사(빈)	·슈피텔라우 소각장, 임대주택
11.14 (목)	빈 (오스트리아)	가소메터 시티	·가소메터 시티 현장방문 및 현장관리자 면담
11.15 (금)	프라하 (체코)	역사지구	·현장답사(프라하)역사지구 현장 견학
11.16 (토)	-		이동(프라하 → 인천)

II. 출장 내용

1 스위스(취리히, 빈터투어, 글라루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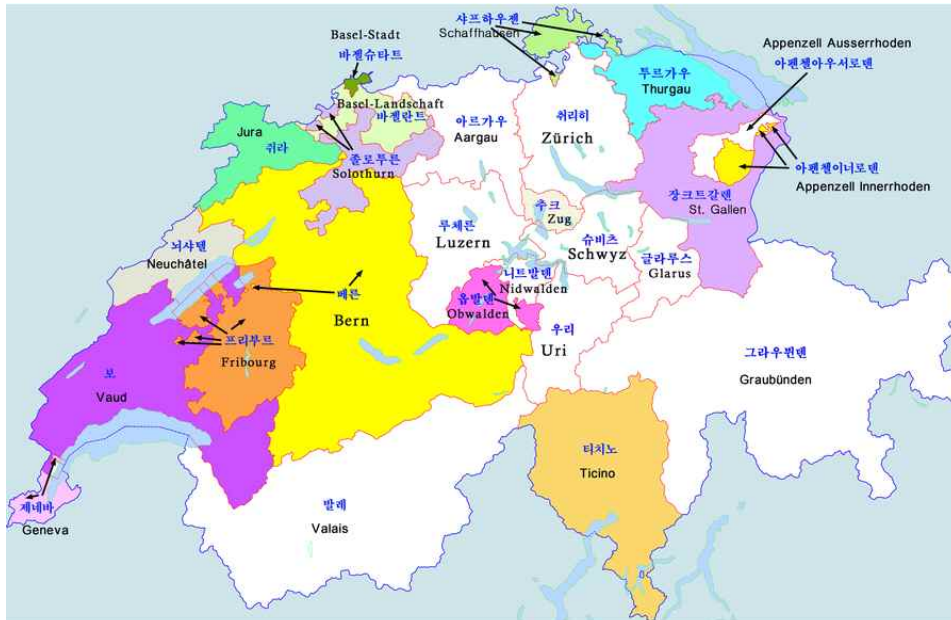
1. 취리히(Zürich)

□ 개요

- (인구) 약 396,000명 (취리히 주 약 1,400,000명)
 - 약 32%는 비스위스인으로 다문화적 인구성격을 보임(독일인>이탈리아인>포르투갈인 순)
- (면적) 1,729km²
- (행정구역) 12개의 district와 34개의 quarter로 구획
 - agglomeration of Zürich (취리히 집적체)는 취리히시와 130개의 municipality (지방자치체)로 구성
- (역사) 12세기 이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도시 경계가 확대됨
 - 1351년 스위스 연방에 가입
 - 1830년 파리에서 일어난 7월 혁명에 자극을 받아 스위스 각지에서 일어난 ‘재생운동(Regeneration)’의 중심 역할을 함
 - 1839년 9월 ‘9월 혁명’ (취리푸츠헤[Züriputsch])으로 보수정권이 탄생함
 - 1846년 3월 ‘예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회주의적 활동을 금지

□ 도시성격

- (유럽 최대의 외환시장) 중세시대부터 이어온 지리적 이점으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상업, 공업(섬유, 중화학, 전자기계, 양조 등)의 중심지임
 - 1519년 종교개혁으로 경제적 활력이 불어나 취리히는 스위스 금융의 중심지가 됨
 - 경제적·정치적 안정 때문에 신용이 높아 스위스 중앙은행 등 국내 은행과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이 지점을 설치, 금융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
- (교통의 요충지) 유럽의 도로, 철도의 결절점이며, 도심 11km 북쪽에 위치한 클로텐 비행장은 스위스 최대의 공항으로 세계 각지와 연결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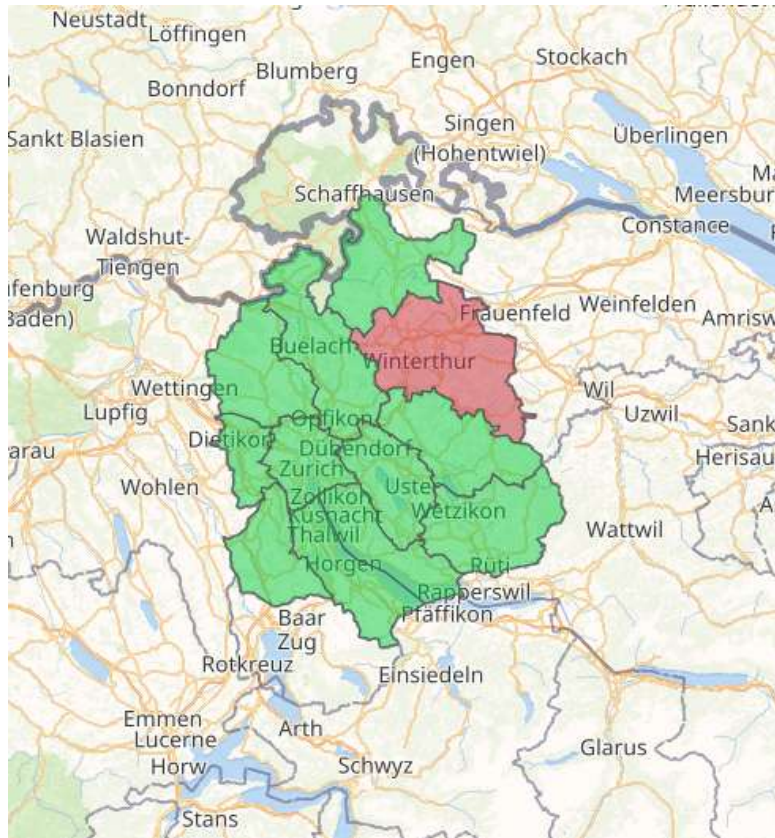


〈 스위스의 칸톤 위치도 (출처: 나무위키) 〉

2. 빈터투어(Winterthur)

□ 개요

- (명칭) 빈터투어(Winterthur) 또는 빈티(Winti)
- (인구) 111,851명 (district인구는 169,513명, 2018년 12월 기준)
- (면적) 67.93km² (district면적 251.25km²)
- (행정구역) 취리히주의 12개의 district 중 하나
 - 빈터투어 district는 19 municipalities(지방자치체)로 구성되며 주도는 빈터투어임
 - 빈터투어는 취리히 북쪽 약 20km에 위치함(기차로 약 20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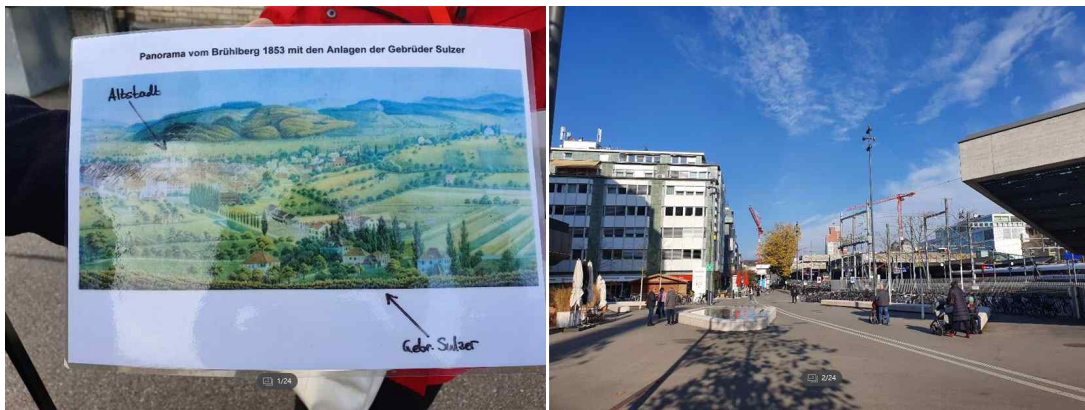


< 취리히주와 빈터투어의 위치 >

(녹색: 취리히주, 적색:빈터투어)

□ 도시성격

- (역사) 1180년부터 역사적 문헌자료에 언급됨, 당시 로마인들이 정착하며 해당지역을 비투두룸(Vitudurum)이라 명명
 - 1264~1467년에는 합스부르크가(家)의 영토였으나, 1467년에 취리히주로 편입됨
- (관광) 예술, 역사, 자연유산이 풍부하며 구시가의 보행자지역은 스위스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임
 - 암 슈타트가르텐(Am Stadtgarten)을 비롯한 17개의 박물관과 카지노 시어터(Casino Theater), 스위스 과학센터 테크노라마 등의 관광지가 분포함
- (산업) 취리히 북동쪽 20km, 철도·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 기계·직물·식품 등의 공업이 성하며, 특히 국내 차량공업의 중심지
 - 기관차·디젤엔진·터빈류의 생산이 많음
- (가든시티) 오래된 산업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정원의 분포와 수가 매우 높음, ‘저택과 정원’이라는 특화된 시티투어가 존재함



〈 빈터투어의 과거(좌)와 현재(우) 〉

□ 현장답사: 산업시설 재생단지

- (개요) 빈터투어는 과거 증기·디젤기관을 생산하던 산업부지였으나, 산업용도 기능 이전 이후 리모델링하여 주거를 비롯한 상업용지, 오피스, 대학교 등 다른 용도로 재생·활용 중임
 - 1900년도 이전에는 증기기관을 관리하는 기계가 생산되었고, 1900년대 이후에는 디젤기관이 생산됨. 1988년에 산업용도 기능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도심부에 산업시설 용지가 남게 됨
 - 그 후 2000년에 일부 산업시설을 주거용도로 리모델링하는 첫 번째 주거 프로젝트가 진행됨. 주거공간은 사회적 지원을 위한 주택이 아닌 일반인 대상의 주거공간으로 쓰임 (개발 시행사가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을 위한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음)



〈 옛 산업시설(상)과 주거 리모델링(하) 〉

- 100년 전에 활용되던 건물과 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석탄 저장소 주변에는 당시 이용하던 철도 흔적이 남아 있음
- (재생 1_대학 도서관) 과거 직업교육을 했던 작업장을 현재 취리히대학교 응용사회과학대학의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음
 -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이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유리를 매끈하게 처리하지 않고 과거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도서관 내부에는 공장건물 당시의 일부 흔적을 그대로 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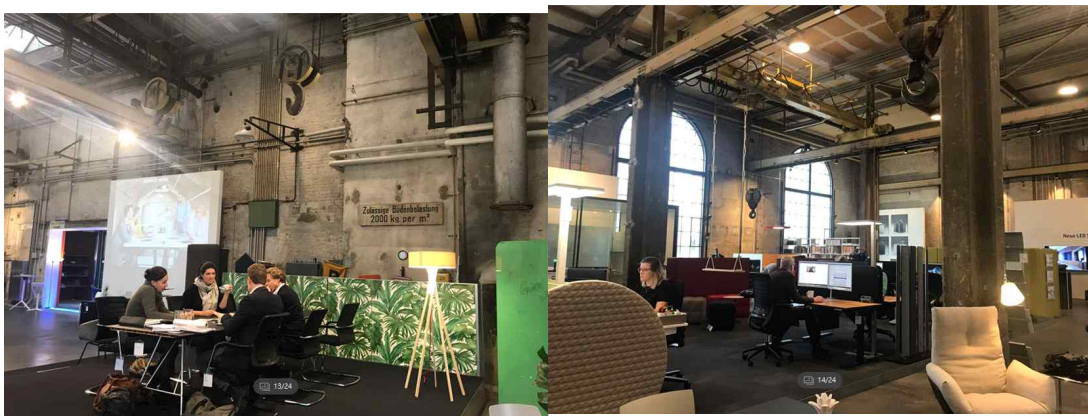
〈 취리히대 응용사회과학대학의 도서관 〉

- (재생 2_공공, 업무공간) 디젤모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1930년대 건물은 리모델링을 지원했던 보험회사와 시청이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 2000년도에 장 누벨이라는 프랑스의 건축가가 새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포기함. 이후 보험회사(AXA)가 다시 계획하면서 전면 철거에 따른 신축이 아닌 건축물 입면부(파사드)를 활용하여 재생하는 방향으로 재 추진함
 - 1834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진 건물은 현재 보육공간(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최초의 건물(현재 보육시설로 활용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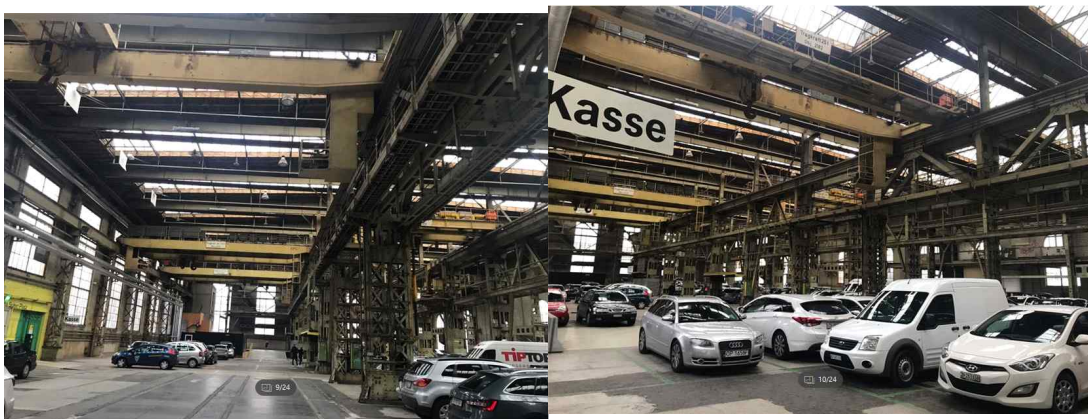
- (재생 3_오피스, 전시공간) 1988년 산업기능이 모두 중단된 후 10여 년간 방치되었던 공장부지는 1998년 개인이 상가로 리모델링하여 오피스 관련 가구의 전시장 겸 회사로 사용 중임
- 기업 구성원이 일하는 모습들을 가구, 공장설비 등과 함께 노출하여 하나의 홍보 전략으로 보여줌
- 일반적인 오피스 공간의 이미지가 아닌, 당시에 활용했던 중장비 등의 기존시설을 그대로 남겨둔 채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전시 및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음



< 기존 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한 오피스(가구업체) >

- 카탈리나 광장은 카탈리나 줄저 형제의 누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광장으로 과거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전 철재 등의 원자재를 하역하던 창고시설 부지를 광장공간으로 조성하였음
 - 광장에 인접한 건축물은 입면 패턴을 유사한 형태로 지어 연결성을 강조함. 건물 내에는 테라피 관련 교육기관과 건축관련 대학교가 입지함. 상층부는 주거공간, 하층부는 오피스와 대학으로 이용되고 있음
 - 오피스, 교육, 주거공간이 한 공간에 입지하면서, 기존의 산업유산이나 건물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 (재생 4_임시 주차공간) 리모델링이 예정된 건물은 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용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함
 - 일부 시설은 빈터투어시에서 건축유산으로 지정해 놓은 건물이기 때문에 쉽게 개조하기 어려움
 - 투자 및 계획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이고, 이후 콘서트홀로 리모델링할 예정임



〈 주차장으로 임시 이용 중인 건축물(문화재로 지정) 〉

-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취리히주와 빈터투어시가 위원회(시공무원과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구성)에서 정한 사항으로, 당시 소유주가 해당 건축물이 건축문화재로 지정 후에 투자 개발이 쉽지 않자 시로 매도함
 - 시는 건물을 콘서트홀 혹은 체육시설과 같이 공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임
 - 건물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며 개발할 계획임
- 록슈타트라고 불리는 단지 내 일부 지역 대상의 신규 프로젝트는 1900년도 초 기차가 처음 개발되기 시작할 때 스위스에서 처음 기관차를 만들었던 부지로, 상업, 주거, 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시사점)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도시공간에서 이전한 산업, 공공시설 부지는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건설되어 왔음
 - 빈터투어의 경우, 과거의 산업유산을 적극 유지하고 활용하여 오피스, 교육,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함
 - 과거의 역사공간을 지속적으로 남겨, 지역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은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노후 공공, 산업시설 부지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3. 글라루스

□ 개요

- (명칭) 글라루스(독일어 Glarus) 또는 글라리스(프랑스어 Glaris)
- (인구) 글라루스 주 약 40,000명 (글라루스 시 약 13,000명)
- (행정구역) 스위스 동부에 위치한 가장 작은 칸톤이자 주도, 2011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25개였던 행정구역을 3개(글라루스, 북글라루스, 남글라루스)로 통합함
- (면적) 주 면적 685 km², 시 면적 103.7 km²
- (역사)
 - 1798년 프랑스 침공으로 인해 글라루스는 Helvetic 공화국 린스주(Canton of Linth)의 주도가 되었고 칸톤 행정부가 글라루스로 옮겨짐
 - 1802년 8월, 글라루스가 직면한 위기로 인하여 칸톤행정부는 이전하였고, 1803년 Linth주가 해체되어 이전 보다 작은 글라루스 주의 주도로 남게 됨
 - 1861년에 일어난 대화재로 도시의 2/3가 파괴되어(593건물) Bernhard Simon과 Johann Caspar Wolff의 주도로 그리드 플랜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짐

□ 도시성격

- (위치) 린트강과 접하며 Glärnisch(글레르니쉬)산 산기슭에 위치
- (유럽 최초의 노동법 도입) 1864년 유럽 최초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노동법」을 도입
- (직접민주주의 시행)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모여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라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2개의 주 중 하나(나머지 한 곳은 아펜첼이너로덴주)
 - 매년 5월 셋째주 일요일에 집회가 열림
- (교통) 철도: Ziegelbrücke-Linthal 노선 글라루스역, S-Bahn(시간당 1회): S25(Zürich -Linthal), S6(Rapperswil-Schwanden)
- (경제) 19세기 문양이 인쇄된 장식용 직물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며 해당 산업이 발달함, 오랜 광업의 역사가 있어 앙기에 위치한 돌산, 엘름에 있는 점판암공장, 퇴디지역의 공룡트랙 등의 볼거리를 제공함



< 스위스 글라루스 위치도(출처: 구글맵) >

□ 현장답사 및 인터뷰

- (개요) 스위스는 지방자치, 직접민주주의에 따라 모든 사안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결정됨. 이중 란츠게마인데는 광장에서 유권자들(지역주민)들이 모여 지역의 의제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는 주민총회의 형태로 칸톤단위의 주민총회(란츠게마인데로)는 아펜젤과 글라루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음
 - 칸톤단위에서 행해지는 란츠게마인데는 대부분 폐지되었고, 현재는 아펜젤과 글라루스 두 곳만 남아 있음
 - 매년 각각 4월 마지막 일요일, 5월 첫째주 일요일에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아펜젤의 경우 제한된 영역에서 축소된 형태의 주민총회가 이루어지므로 제대로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지역은 26개의 칸톤 중 글라루스가 유일함
- (글라루스 광장) 글라루스는 만 16세 이상으로 하며 선거, 국민제안, 국민투표, 청원 등의 형태로 행사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란츠게마인데에서 직접민주주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지역임
 - 다음 아래의 사진은 과거와 현재의 글라루스 란츠게마인데 현장임





- 1년에 한번씩 광장에 모여서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해 시민이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능을 글라루스에서 시행하고 있음
 - 총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곳은 칸톤 의회이며, 주민총회를 앞두고 가정에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용지의 앞면에는 총회의 시간 장소, 유권자 주소가, 뒷면에는 안건 목록 등이 기재되어 있음
-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책자를 발간하여 가정으로 보내며 주민들은 이 책을 통해 주민총회에서 다루어질 안건에 대한 사전에 정보를 얻음
 - 신청된 안건, 문제현황, 법적원칙, 주정부 의견 등이 수록되어 있음
- 주민총회에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정책과 참여인원 정족수와 같은 규정은 없으나 주민의 관심 흥미를 높이기 위해 주민대상의 열린 소규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정보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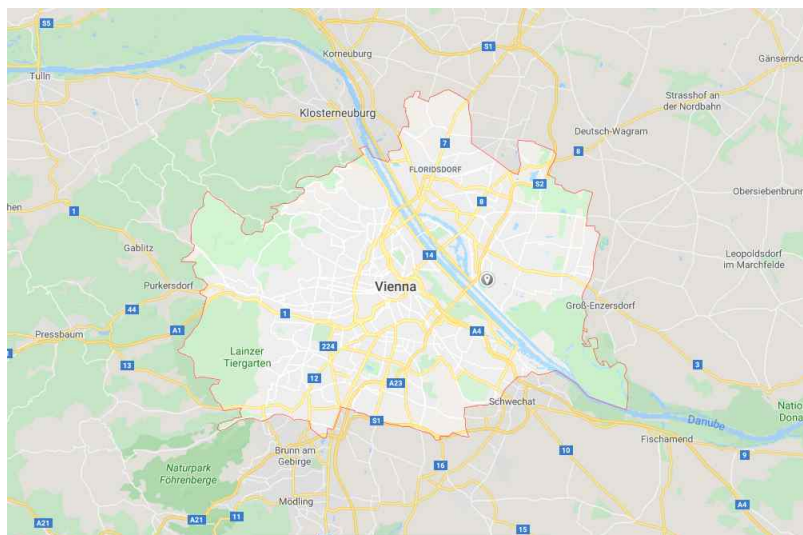
- (주요 인터뷰)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현재 스위스 게마인데 단위에서의 사업과 과세권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 한국의 경우(세종시의 예) 행정과 정치단위가 일치해 그 안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가?
 - 게마인데라는 정치단위, 도시정부의 단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며 연방헌법에 따라 게마인데는 주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권이 인정되고 있음. 게마인데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영역은 학교, 사회복지, 도로건설, 지구계획, 조세 등임
 - 그리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이루어지는게 보통인데, 큰 단위의 사업에서는 시민 중심의 위원회, 전문가, 그리고 집행부간에 의제를 협력하기도 함
- 정치단위인 게마인데에서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으며 그 중 주민세율까지도 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식을 따르게 되는가?
 - 의회에서 결정하는게 있고 게마인데에서 결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의회 결정사항도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함. 게마인데 결정하는 사안 역시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그 전까지 계획된 것, 지출된 것 등 관련 통계자료를 보여주고 주민이 납득이 가면 찬성하는 구조를 가짐
 - 무엇보다 세율을 갑자기 올리기 위해서는 세율 변동에 대해 수입, 지출을 계산하고 앞으로 계획을 고려했을 시 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정보를 각 세대마다 우편을 보냄
 - 주민들은 평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신문이나 관련 미디어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고 동의여부를 결정함. 이러한 결정방식이 결국에는 전체 시민

이 투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라 판단함



1. 개요

- (명칭) 빈(Wien) 또는 비엔나(Vienna)
- (인구) 1,897,491명 (2019년 1월)
- (면적) 414.9 km²
- (행정구역) 오스트리아 9개의 자체 지방정부(연방주) 중 하나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23개의 지구로 구획됨
- (역사) B.C. 15년 로마군이 경계선을 세워 ‘빈드보나’로 명명함
 - 게르만족, 마자르족, 독일 바벤베르크 가문, 합스부르크왕가 등의 통치를 받았으며 15세기 이후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로 성장함
 -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됨



〈 오스트리아 빈 위치도(출처: 구글맵) 〉

2. 도시성격

- (유럽의 고도(古都)) 수백 년간 대제국의 수도였고 지리적 이점으로 정치적 중심지를 이루어 현재까지도 중부 유럽의 경제·문화·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함. 석유 수출국 기구(OPEC), 유럽 안보 협력기구(OSZE), 국제원자력 기구(IAEA) 등의 국제기구 본부가 입지하고 있음
- (예술) 모차르트와 베토벤, 슈베르트, 브람스 등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도시, 현재 오스트리아 빈 소년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세계적으로 유명
-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도시(빈 역사지구)로 합스부르크 제국 시대의 건축물과 유산으로 27개의 궁전과 163개의 주택이 분포하고 있음
 - 호프부르크(Hofburg) 왕궁, 슈테판 대성당(St. Stephen's Cathedral), 커피하우스, 비엔나 미술사 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국립도서관 프룬크자알(Prunksaal der Österreichischen Nationalbibliothek), 비엔나 왕궁 예배당(Burgkapelle), 벨베데레 궁전(Belvedere Palace) 등



슈테판 대성당



벨베데레 궁전

3. 현장답사

□ 슈퍼텔라우 소각장

- (연혁) 1971년 건립 → 1987년 대형화재 발생으로 소각장의 기능 상실 → 1992년 리모델링을 거쳐 친환경 소각장으로 재탄생함
- (특징) 친환경 소각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훈데르트바서(Hundertwasser)가 참여하여 재디자인함
 - 연간 25만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빈의 6만 가구에 난방에너지를 공급함
 - 배기가스 정화시설로 공해물질 배출을 차단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함
- 훈데르트바서가 디자인한 독특한 외관으로 기존 소각장이 갖는 부정적 인식을 잠식시키며 신개념의 관광명소로 조성함



〈 슈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 전경 〉

- 소각장 로비는 홍보공간이자, 오스트리아 청년 예술가의 작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청년 예술가 작품은 1개월 단위로 교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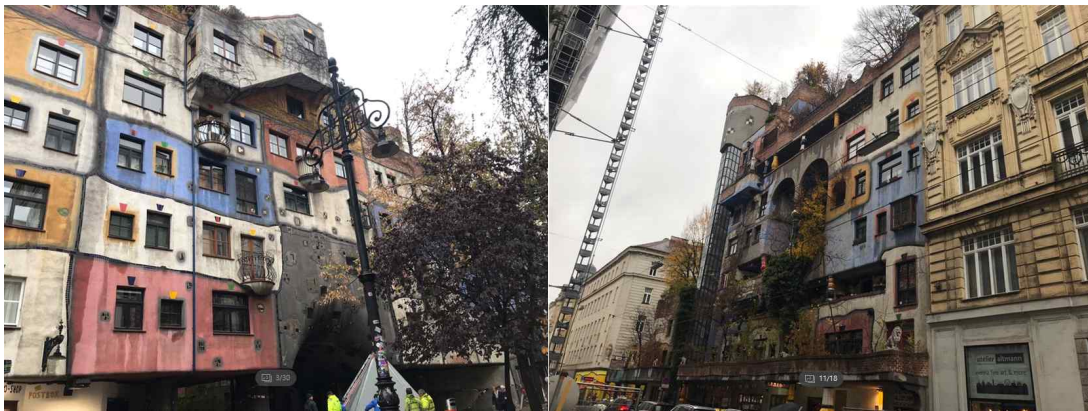


〈 슈퍼타워 소각장 로비 전시·홍보공간 〉

- 소각장의 화재 때 외곽지역으로 옮기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전 시장(헬무트 질크)가 시민들을 설득 기존의 위치에 소각장을 재건할 수 있었음
 - 다이옥신과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첨단 기술 도입, 시민들이 수치 등을 감시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공약임
- (시사점) 소각장 시설은 최근 환경오염, 특히 대기오염 문제가 첨예하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 대표적인 님비시설임
- 도심공간에 기존 시설과 공존하기 어려운 소각장을 예술적 감각을 입혀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함은 적극적인 시설 활용방안이 마련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 판단됨
- ① 예술적 감각과 친환경 요소를 적극 도입한 점, ② 시설의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노력한 점, ③ 시설 조성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 유도한 점 등이 도시 내에서 님비시설이 기존 조직들과 효과적으로 공존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됨

□ 훈데르트바서 빌리지(임대주택)

- 오스트리아 출신 화가 겸 건축가인 훈데르트바서가 1985년 친환경 공공임대주택(훈데르트바서 빌리지)을 조성함
 - 빈 제3구역에 위치(대지면적 1,543㎡, 9층 규모의 벽돌구조)
 - 30~150㎡ 규모의 주택 52호, 상점 5호, 어린이 놀이터 2개소와 윈터 가든(winter garden), 카페 등 배치



〈 훈데르트바서 하우스(임대주택)와 판매시설 〉

- 곡선으로 설계된 건물의 외벽 곳곳에 알록달록한 타일 모자이크를 부착하여 독특한 외관을 형성함
 - 또한, 바깥으로 난 창문의 크기와 형태를 모두 다르게 하여 천편일률적인 모습을 탈피하고자 하였음
 - ‘획일적이지 않은 불규칙함’, ‘창문의 다양함’, ‘아름다운 장애물’을 기준으로 전체 구조를 구상하여 기존 주택과 같은 평평한 바닥공간과 일직선의 복도가 아닌 창의적이고 특색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함



〈 다양한 실험정신이 담긴 주택 주변시설 〉

- (시사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사회적 배려 차원의 임대주택 시설 도입을 적극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기존의 임대주택 인식에서 탈피하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임대주택을 반영해야 함
 - 기존의 부정적인 임대주택 인식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주택자산으로의 활용방안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음. 기존 주택과 잘 어울리고, 주택의 형태, 외관, 기능 등이 차별화된, 창의적 실험공간으로의 활용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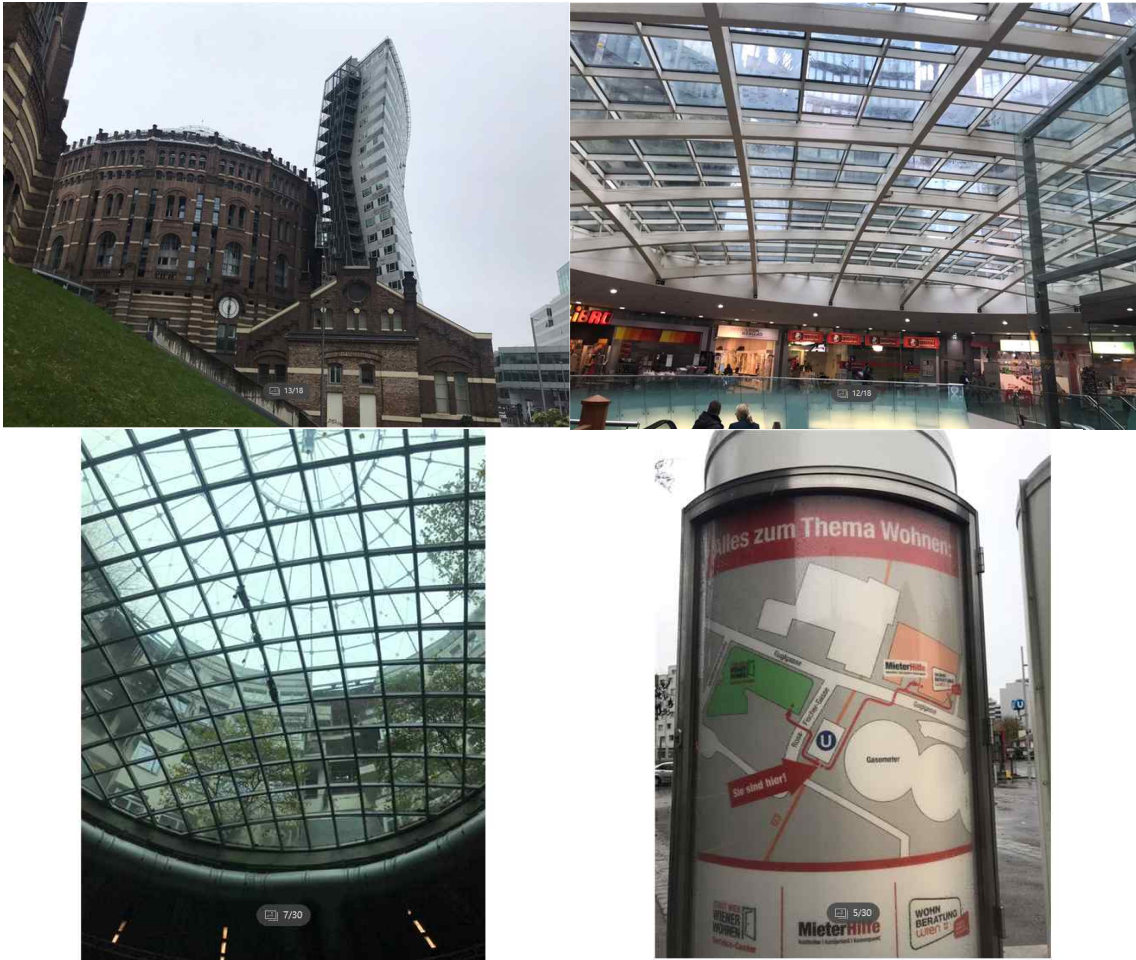
□ 가소미터 시티

- 노후하고 수명이 다 한 (산업)시설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함은 최근의 도시 재생에 있어 기존 시설 재활용, 역사자원 인식, 친환경 등의 주요한 키워드와 연계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빈의 가소미터는 과거 비엔나에 가스를 공급하던 저장고 시설이었으나, 기능을 다 한 후에 방치된 공급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재활용한 시설임



〈 가소미터 시티 전경 (<http://www.biztribune.co.kr/news>) 〉

- 1899년 설치되어 활용되다가, 1984년 천연가스가 도시의 주 연료로 대체되면서 활용되지 않음
- 새롭게 신축한 기숙사 시설을 제외하고는 전체 주거 및 상업시설 부분이 예전의 건축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한 것임
- 당초에는 호텔 또는 박물관 등으로의 개발을 추진했었지만, 여의치 않아 대안점으로 주거공간 중심으로 개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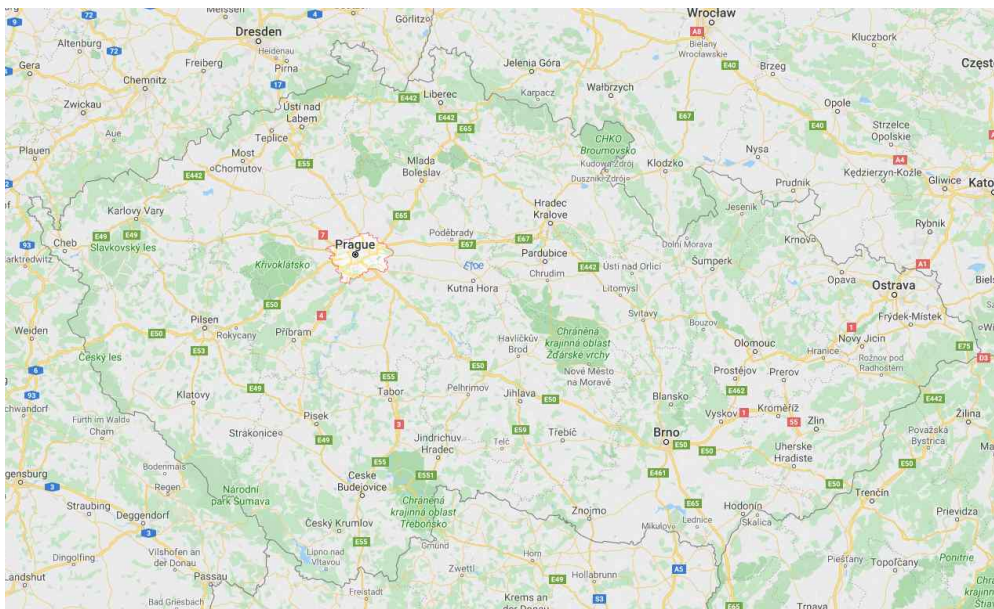
〈 가소메터 시티 〉

- (시사점) 수명을 다하여 활용되지 않거나, 폐기된 시설, 노후된 공공/산업 시설을 역사시설로 인식한다면 이를 폐기, 철거하기 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례와 같이 주거용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휴식공간으로 종합재생 활용할 수 있음
 - 가소메터의 경우, 시와 시민이 함께 고민하여 지역 활성화요소, 지역 산업유산으로 활용. 시 + 시민의 의견 취합, 조정 필요
 - 이전 공공기관 부지, 노후 산업시설 등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음

3 체코(프라하)

1. 도시현황

- (명칭) 프라하(Prague)
- (인구) 1,280,508명 (2017년, 광역도시권 전체 인구 약 216만 명)
- (면적) 496 km²
- (행정구역) 체코의 수도
 - 1960년 10개였던 자치구를 1990년부터 57개의 자치구(městské části)로 확대 구획하여 공원, 환경보호 등을 관리함
 - 2001년 57개의 자치구를 22개의 행정구(správní obvody)로 묶어 사업등록증, 신분증, 여권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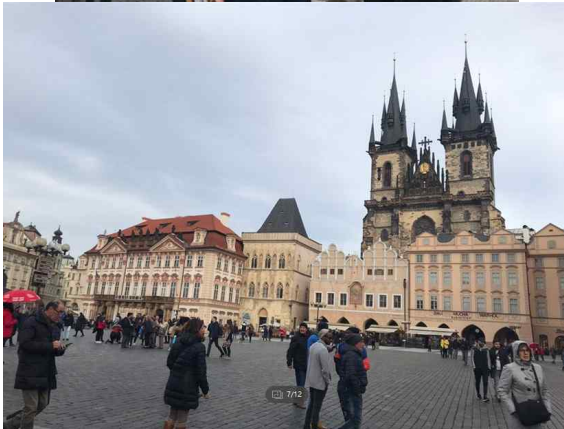


< 체코 프라하 위치도(출처: 구글맵) >

- (역사) 9세기 창건 이후 보헤미아 왕국의 수도, 1346년 신성 로마제국의 수도를 거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도시였다가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체코슬로바키아의 독립과 함께 수도가 됨
 - 1993년 체코 공화국이 성립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

2. 도시성격

- (행정 구조) 구역에 따라 2~3 층위의 지방정부 구조를 가짐
 - 최상위 기관은 수도 프라하 시정부(Magistrát hlavního města Prahy)이고, 2001년 이후 22개의 자치구를 하위 층위로 가지며, 시정부와 자치구 모두 의회와 행정장을 선출함
 - 수도 프라하의 시장은 프리마토르 (primátor)라고 불림
- (민주화 운동) 1968년 ‘프라하의 봄’, 1989년 ‘벨벳 혁명(또는 신사 혁명)’ 이 대표적이며, 비폭력 운동으로 공산당 정권을 무너트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음
 - 벨벳 혁명 : 1989년 11월 17일 평화적 학생시위를 경찰이 억압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27일 체코슬로바키아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2시간의 총파업을 결행, 11월 28일 공산당이 일당제 제도를 폐지하고 이후 민주적 투표로 대통령직을 선출함
- (세계문화유산) 1992년 866헥터에 이르는 시내중심가가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에 등재됨(프라하 역사지구)
 - 프라하성, 성 비투스 대성당, 카를교, 구시가광장 등



〈 프라하 구시가지를 포함한 시가지 내부 〉

- (시사점) 프라하의 역사보존 활용 사례가 세종시 읍면지역의 도시재생 사업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발지향의 사업 보다는 기존의 도시조직과 활동을 유지하여 새로운 신규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방향이 적절할 수 있음
 - 또한, 세종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전의초수, 김종서 장군 묘역, 장육진 화백 등의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세종시만의 역사·문화 브랜드로 활용 가능할 것임. 이들 자원은 행복도시 도시관광요소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